

#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7차 정기
일시	18. 02. 04 15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2/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 □ 보고 안건

### 1. 리더스포럼

: 1월 30일 ~ 2월 1일. 2박 3일 동안 제3회 리더스포럼 진행.

확대운영위원회, 총장단과의 대화 속기록 작성, 페이스북 페이지 업로드 완료.

### 2. 전체학생대표자 & 새터기획단 대상 성평등·인권 교육 인원 파악

: 310관 B601 또는 B501, 21일 15~17시 진행 예정.

: 단과대별 참여인원 파악하여 2월 10일 월요일 송부 요망. 대표자와 새터기획단 구분하여 파악하되 겹칠 경우 대표자로 분류 요망.

### 3. 건물별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날짜 배분

: 단과대학 학생회 참여하여 진행. 단과대별 주 사용 건물 배정하여 일정 분배하여 가안 작성. 수정 필요한 경우 연락 요망.

: 탐지 완료 스티커는 공유 시안대로 약 2000개 주문 완료. 전 건물 탐지 완료 이후 단과대별 일괄 배부, 부착 예정.

## □ 논의 안건

### 1. 본교 동아리 내 성폭행 사건

-자연과학대학: 자연대학 차원 FUQ 연서명 제의 받음. 단과대운영위원회 논의 후 참여 결정 예정. 중앙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어야 함. 단순히 동아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 자체에 대한 이슈가 된 상황.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아닌, 피해자 인권 또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학생 자치의 지향점에 대한 의지 표명 필요. 중앙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행동 양식을 표명해야 함. 관련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함. 이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이 좋을 것.

-동아리연합회: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해당 동아리와 연락 진행 중이나 원활하지 못함. 피해자는 성평등위원회 대리인을 통해 사건 진행 중. 해당 동아리, 학생처 방문하여 입장 밝힌 상태. 인권센터 주관 위원회 소집 대기 중이나 정확한 논의 없어 2차가해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회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회칙에 명시하자는 것인지? (사회과학대학: 맞음.) 이번

사건이 동아리 내에서 오간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 역시 관련하여 많은 논의 진행. 동아리 내 임원진 토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해야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옴. 동아리연합회는 사건 접수가 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경찰서 동행, 병원 동행, 가해자와 동아리 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분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함. 또한 이후 대처를 위해 동아리 내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 동아리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신고를 하는 등의 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사건 해결의 시작은 소속 단위에 대한 신고에서 시작하며, 회원 또는 동아리 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매뉴얼을 제작할 것. 이것은 동아리연합회 자체가 소속 동아리에 대한 처벌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 그러나 학생회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회과학대학: 공동체 내 발생 사건임에도 공동체적 대응이 없음. 정보 유출, 부정확한 사실관계 속에 2차 가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총학생회 또는 인권센터가 관여하여 사건을 주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피해자 중심으로 정확히 사건을 공론화하고 유사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이 필요. 반 성폭력 회칙을 부활시켜 공동체적 대응에 대한 교내인식을 상승시켜야 함. 예전의 회칙인 만큼 수정이 필요할 것이나 회칙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회칙 등이 있었다면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 학생사회의 의식 함양을 위해 회칙 부활 필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등 단과대학 차원의 반성폭력 회칙 제정의 사례 존재. 회칙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 사회과학대학 내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의 예로 공론화, 회장단 참여, 인권센터 연계, 직접적인 사과문과 대책을 받는 등이 있음. 단과대학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 전문적인 것은 인권센터에 인계하나 작더라도 소속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함. 공동체적 대응과 관련하여 학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공론화 자체에 대해 피해자가 노력해야 하거나 공론화를 위해 피해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피해자에 주어서는 안 됨. 대책위원회 역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꾸려가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 설부른 회칙 제정이 가지는 부작용은 이해하나 1학기 전학대회까지 길게 보면 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짧지 않다고 생각. 2학기 제정은 늦다고 생각. 되도록 1학기 전학대회에서 진행해야 할 것. 학내 동아리나 언론사, 전문 기관 등과 협업한다면 빠르게 진행 가능할 것. 소속된 단위가 신고를 우선으로 말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대책위원회를 징계를 내리는 기구로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위 기구의 대책위원회 등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인문대학: 학생회가 전문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기존 회칙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 등에 있어서 회칙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회칙 변경이 필요.

-공과대학: 회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피해자를 2차 가해 등에서 보호하겠다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회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 그러나 회칙 개정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회칙의 의의를 해칠 수 있음.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따져야할 것. 또한 회칙 내 대책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 싶음. 인권센터를 떠나 학생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제정되는 순간 똑같은 설명 등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 신고를 어려워하는 자체를 해결하고, 신고를 받아 이것을 인권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예술대학: 11월 신고 이후 해당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 2차적으로 동아리에 이야기해 공론화를 원한 것 자체까지 사실로 알고 있음. 동아리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에서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총학생회는 그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

## 2. 리더스포럼 피드백

-약학대학: 안성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레크리에이션 시간 말고 화합의 시간이 따로 없어 아쉬웠음. 캠퍼스별로 확대운영위원회를 따로 진행하고 안성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기를 바람.

-자연과학대학: 대표자들을 모아 하는 강연의 주제가 취업에만 국한된 것이라 좋지 못했음. 진지한 이야기에 대해 대화하며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전체 일정에서 너무 적었음. 보여주기 식 소통이라는 생각. 레크리에이션 역시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 또한 둘째날 저녁식사 이후 그랜드홀에서 양 캠퍼스 간 소통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불만. 총장단과의 대화에서는 모호한 답변 역시 많아 좋지 못했음. 뉴비전 관련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대표자들의 질무네 대해 자료가 없어 답변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총장단에서 준비해서 참석한 것이 맞는지 의문. 또한 자연대 질문 중 총장연임과 관련한 질문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그 경위나 사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 끝으로 학교측은 리더스포럼 진행 전반의 발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함. 일정상의 내용과 실 진행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 필요 없는 시간을 삭제하고 모두 총장단과의 대화로 채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더불어 기념품 가격에 대한 의문, 그리고 엄연히 초대받은 총학생회 집행부가 행사 내내 일해야 했던 것 역시 불편.

-사회과학대학: 만찬 등에서 총장단과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음. 양 캠퍼스 소통도 더 필요. 문화탐방 등의 시간을 줄이더라도 총장단과 양 캠퍼스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있었어야 함. 준비된 자료가 없어 자세히 말하지는 못한다는 답변이 너무 많아, 다음 리더스포럼에서는 관련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총장단에 송부하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끝으로 이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았으며,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의자 위로 올라가라고 한 것은 위험성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함.

-공과대학: 단위요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은 전부 준비하여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나오고 총장단에 질의한 내용이 대부분 단위요구안 내부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 역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았음. 단위요구안을 좀 더 살펴보고 와주시길 바람. 단위요구안에 있는 내용을 답변할 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주실 것. 또한 리더스포럼에서 안성캠퍼스 받았을 소외감에 대해 고려해야 함. 총장단과의 대화에서 차례로(서울-안성 번갈아) 질문을 받아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 끝으로 학생 대표자들을 위한 자리에서 총학생회 집행부가 고생한 것에 대해 학교가 한번이라도 언급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경영경제대학: 학교에서 준비 대접을 학생이 받는 것이 신선. 경영경제대학의 경우 비상대책위이다보니 간부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를 계기로 돈독해졌다는 의견도 있었음.

-예술대학: 모든 단위가 모인 자리. 그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 의결 안건

1. 본교 동아리 내 성폭행 사건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명의 성명서 작성  
(12단위 참여 중 12단위 찬성, **가결**)

## □ 기타 안건

1. 새내기 새로배움터 방문 날짜

: 각 단과대학별로 15분 필요. 방문 용이 시간 안내 요청

: 핸드크림 협찬품, 단과대별 인원 배정할 것. 새터 지참하여 배부 요망.

-공과대학: 3월 2일. 공대 출발 시 총학생회장단 함께 출발.

-인문대학: 3월 3일.

-자연과학대학: 2월 23일. 19시

-약학대학: 2월 27일. 16시.

-경영경제대학: 3월 3일.

-사범대학: 2월 26일.

-간호대학: 3월 2일

-사회과학대학: 3월 9일. 21시.

-예술대학: 3월 9일. 15시.

## **2. 12일 13일 수강신청 관련 컴퓨터실 사용**

: 컴퓨터실 대여 완료. 12일 신청은 11일에 배부, 13일 신청은 12일에 배부. 관련 홍보글 전파 요청.

## **3. 8차 정기회의 -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전 단위 필참 요망.**